

「매스·컴뮤니케이션」研究의 方向

Direction of Mass Communication Research

研究部長 金 圭 煥
社會學博士

「매스·컴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輸入된지 이미 10年이 넘는다. 美國에서도 이것이 普及되기 始作한 것이 第2次大戰以後라는 點을 생각할때에 이 外來語가 오늘날과 같이 韓國社會에 大衆化된 것은 解放後의 學術文化가 主로 美國의 影響을 받아들인 가운데서도 그 速度가 顯著하게 빠른 것이었다.

1924年에 創刊된 「저널리즘·쿼터리」誌는 1945年에는 「컴뮤니케이션즈 分野에 있어서의 研究」라는 副題를 부쳤고 다시 1952年에 와서는 「매스·컴뮤니케이션의 分野에 있어서의 研究」라는 副題로 바꿨다. 이것은 「저널리즘」研究가 「매스·콤」研究로 그 表現이 變遷된 推移를 興味있게 象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世紀 末葉에 近代新聞이 出現하고 그 後 日帝下에서 民族抵抗 또는 文化啓蒙의 重要한 媒介體로서의 新聞雜誌의 發達은 「저널리즘」研究 또는 「저널리즘」教育이란 말을 慣用語로서 使用케 하였다.

그러나 「저널리즘」이 「매스·컴뮤니케이션」으로 發展한 背景에 우리는 두가지의 要因을 들 수 있다. 즉 하나는 오랜 外國支配와 自體의 後進性에서 오는 諸 壓迫에도 不拘하고 巨視的으로 볼때에도 韓國社會가 畸型的 漸進的으로나마 그래도 近代化의 길을 더듬어 왔다. 따라서 人間關係의 테두리속에서의 思想 感情의 傳達 交流등에 관한 現象에 대한 關心이 擴大되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역시 新聞雜誌 등의 印刷媒體(「저널」)以外에 라디오·텔레비죤 등의 다른 미디어가 發展 乃至는 關心의 對象이 되었기 때문에 送信者로부터 受信者에 이르기까지의 全過程을 包括하는 用語가 必要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要因이 바로 韓國에서도 「매스·컴뮤니케이션」이 現實性을 가진 社會現象으로서 理論的 研究의 對象으로 登場하

게된 背景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에서도 아직 20年 나머지 歷史 밖에 가지지 못한 「매스·컴뮤니케이션」은 物理學이나 經濟學과 같은 科學的 體系을 이루기에는 아직도 距離가 멀다. 그러나 Wilbur Schramm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根本的인 社會過程인 「컴뮤니케이션」은 人間行爲의 實際와 理論을 研究하는 「가장 繁雜한 交叉路」가 되어있으며 따라서 이 分野의 理論과 研究는 心理學·政治學·經濟學·數學·歷史·言語 등등의 學者들의 關心을 끌고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매스·콤」은 人間의 行爲에서 出發하여 모든 社會生活의 基礎가 되기 때문에 非單, 社會科學者뿐만 아니라 적어도 人間을 研究對象으로 삼는 모든 學問과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 「매스·컴뮤니케이션」研究가 社會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의 責任이라던가 新聞의 自由, 「알아야할 權利」, 經濟的 制約이라던가 政府의 統制 등등의 示範的 諸問題에 대해서 重點을 두고온 것은 韓國에 있어서 「매스·미디어」(특히 新聞)가 政治的 社會的 變動에 際하여 커다란 社會勢力으로서 主要한 機能을 發揮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하겠다는 前進的 意慾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매스·콤」研究의 더욱 根源的이고 普遍的인 問題領域, 例컨데 前記한 바와 같은 人間行爲와 「컴뮤니케이션」과의 關係, 精神內容을 記號에 의해서 不特定 大衆에게 傳達하는 全過程, 受信者에 대한 壓力(IMPACT)의 性格과 效果등이 있을 것이다. 「매스·컴뮤니케이션」研究에 있어서 根本的課題는 「컴뮤니케이션」과 그밖의 여러가지 社會的 現象 및 行動形態間의 體系的 關聯性의 種類 및 性格을 決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課題는 美國에서도 成果있는 研究業績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오늘날의 現況은 理論의 水準을 向上시켰다기보담 經驗에 의한 DATA의 量을 增大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7年 R.K. MERTON은 「制限된 健實한 範圍의 그러나 論理的으로 關係지워진 概念」이라는 이른바 「中間領域論」을 내세웠다. 이 理論은 思辯的이고 高次的인 概念構成도 아니고 低俗한 論理的 相互關聯性이 缺如되어 있는 假說도 아닌 態度, 이것이 「매스·컴퓨터이션」研究의 發展을 위해서 必要하다는 것이다.

韓國의 「매스·컴퓨터이션」研究는 겨우 出發點을 지난 段階에서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이 分野의 研究를 發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于先 두가지의 興件을 急先務로 가추어야 하겠다. 하나는 「매스·컴퓨터이션」研究分野에 대하여 隣接科學으로부터의 더욱 많은 參與가 있어야 하겠고, 다른 하나는 經驗的 DATA를 計劃的으로 確保해나가면서 이것을 土臺로 해서 「매스·컴퓨터이션」의 機能, 過程, 效果에 관한 理論의 體系化를 試圖하여야 할 것이다.